

## 코로나 대유행 고비 벗어나나...

5일 오후 5시까지 9명 확진... 이달들어 하루 9명꼴  
 집단감염 여파 여전속 신규 확진자는 대부분 도민  
 AZ백신 2차 접종 60대 숨겨... 도방역당국, 역학조사

이달 들어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인 최근 일주일 새 1일 평균 확진자 수도 10명 이내를 나타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3-4일 내내 한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3일 8명(2634~2641번), 4일 7명(2642~2648번), 5일 오후 5시까지 9명(2649~2657번) 등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657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선 45명이 확진됐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 64명이 확진됐다. 최근 일주일 새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9.14명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 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지난 3일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마트 신제주점 집단감염 확진자가 3명 포함됐다. 이로써 해당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다. 이날 또다른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은 개별 감염 사례이며, 1

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다. 지난 4일엔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명, 타지역 방문자 1명, 코로나19 유증상자 1명이 감염됐다. 4일 오후 5시부터 5일 0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추석 목전... 벌초하는 후손들 추석 앞둔 5일 제주시공설묘지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5일 오후 5시까지 총 9명이 감염된 가운데, 이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6명과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코로나19 유증상자 2명이 포함됐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거나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4건이다.

아울러 지난 3일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마친 60대 A씨가 숨겨 당국이 접촉과의 인과성 여부 규명을 위한 기초 역학조사가 나섰다. 제

주도는 A씨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지난달 24일 제주의 한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한 뒤 숨졌다고 설명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누적 신고 건수는 아스트라제네카 970건, 화이자 843건, 모더나 305건 등 총 2200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격리 중 확진자는 149명이며 격리 해제자는 2497명, 가용 병상은 498병상, 자가격리자는 667명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추석 가족모임 '8인까지' 허용 도,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22일까지 적용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추석에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되고 사적 모임과 식당·카페 영업 시간 제한 기준 등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추석 때 귀성객과 관광객 등 많은 인원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오는 12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

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이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단 사적 모임 기준과 카페, 식당 영업 시간 제한 기준 등 일부 방역 조치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과 동일하게 다소 완화한다.

제주도는 6일부터 22일까지 카페와 식당 등의 객장 내 영업 가능 시

간을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부터 2인까지로 제한한 사적 모임 기준도 완화했다.

제주도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코로나19백신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군에 관계없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6명으로 통일하되 오후 6시 전후로 모임 인원 포함되는 접종완료자의 수를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에 대한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은 종전처럼 참석 인원이 최대 49명으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추석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도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한시적으로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에서 13일부터 26일까지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알림**

### 제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한리일보는 전국 9개 지역 신문사와 공동으로 제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를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개최합니다.

제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기업·기관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보유하고 있는 우수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홍보하여 국내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별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을 박람회장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바이어 상담회 진행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관, 세계여행관, 테마여행관, 여행상품관, 체험관 등 유익한 정보의 교류의 장이 될 본 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9월 9일(목) ~ 9월 12일(일)
- ▶ 장 소 :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
- ▶ 주 최 : 한라일보,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일보, 경북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충주일보, 충북일보
- ▶ 주 관 : (주)한국전사산업원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고양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추미애 전 장관 "4·3 배보상, 금전 앞서 명예회복 문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주민삶 도움 여부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입도하는 관광객 수에 매몰되어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제주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한라일보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관련기사 2면

추 전 장관은 "먼저 우리가 원하는 미래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적이고 도민들에게도 더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제2공항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제주4·3과 관련해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배·보상 연구용

역을 시행하면서 '차등지급 배·보상' 안으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려가 됐다"며 "다행히 정부가 철저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4·3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제가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이고, 촛불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면서 "저는 제주 명예도민 1호다. 특별자치도 제주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더 맑고, 운택한 제주를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657**  
 5일 17시 기준

BTH I.E.V.E.

Electric Vehicle **IEVE** EXPO International

## 제 8 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Expo

2021.09.07(Tue) ~ 09.10(Fri) ICC JEJU

| 주최 |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 주관 |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제1회 한반도 Peace Road 전기차 대장정 / 9월 6~7일**  
 임진각 평화누리광장-세종시-광주시-전남 영암-목포-제주항-한라산 1100도로-송악산-ICC제주

참관객은 반드시 사전신청(www.ievexpo.org)을 하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국방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산업지원위원회, 국가과학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연구원, KERI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무역협회, KAIST, JDC, CEAN

**| 파트너 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KGEN, 한국수력발전, Wp, 한국수력발전, 한국남부발전, Hjuantai Capital, 농업중앙회, 제주은행, kt, SHIN & KIM, BLACKYAK, 신한은행, 해이미디어파트너, 중국자동차신문, Bloomberg